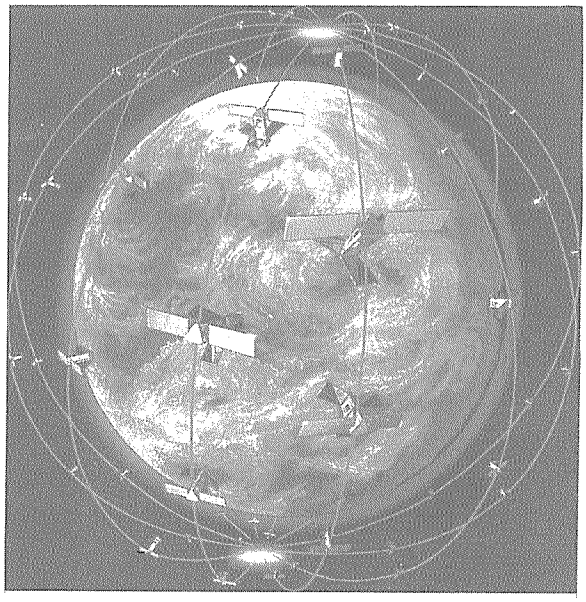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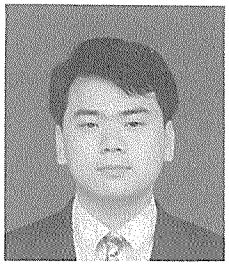
따라서 배우는 인터넷 이야기





류 지 창
(주)데이콤 천리안사업단

1996년 여름, 어느 인터넷 잡지에서 정말로 시청 앞에서 지나가는 시민을 붙잡고 "인터넷이 무엇인지 아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진 조금은 황당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다. 이때도 이미 인터넷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던 때였기는 하지만 환갑이 넘으신 분들까지 부담 없이(?) 참여한 이 인터뷰에서는 "그거 오락 아닌가요?", "그런 거 우린 잘 몰라."라는 대답들이 속출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전세계로 연결된 전산망", 혹은 "정보가 많은 곳"이라는 대답도 있었다. 아마 지금 다시 시청 앞에서 이런 인터뷰를 한다면 "인터넷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라는 대답을 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만큼 이제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익혀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도 인터넷만큼 짧은 시간에 이만큼 세상을 변화시킨 것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인터넷이 세상에 등장한 것은 69년이지만 국내에 본격적으로 소개 된 것은 불과 4년 전인 94년이다. 그 4년 동안 인터넷은 우리 생활을 무척 많이 바꾸어 놓았다.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누구나 인터넷 이용법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도 인터넷은 필수라고 여기고 있다. 도대체 인터넷이 무엇 이길래 이렇게 다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인터넷(Internet)이란 전세계 200여개 국가의 컴퓨터들을 바다 밑에 깔려 있는

케이블과 땅 밑을 통과하는 전선을 통해 서로 서로 연결해 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청와대와 백악관에 있는 컴퓨터도 있고, 루브르박물관과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컴퓨터도 있다. 하지만 결국 눈에 보이는 인터넷의 겉모습은 전선과 기계 덩어리일 뿐이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런 전선과 기계뭉치를 놓고 누구든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에게 유용한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정보 서비스(Information Service) 때문이다. 사람들이 인터넷이라고 불리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서비스를 개발해 두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반드시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에서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배우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다. 예를들면 전자우편(E-mail)이나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이 대표적인 정보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 서비스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장점과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유용하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특히 월드와이드웹서비스는 현재 인터넷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이며 사용법이 간단하면서 기존의 정보시스템들과의 접목 및 연계가 용이해서 각광받고 있다. 개념을 설명하자면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들을 쉽게 열람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서 텍스트, 그림, 동화상, 애니메이션 등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모두 지원하며 하이퍼텍스트라고 불리는 방법으로 문서들을 서로 연결해 두었기 때문에 쉽게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현재 월드와이드웹 서비스를 통해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곳들은 무척이나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방송 및 신문사의 온라인 뉴스 서비스를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KBS, MBC, SBS 등 대부분의 공중파 방송과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등 모든 중앙 일간지가 실시간으로 뉴스를 인터넷을 통해 월드와이드웹으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곳이 한국이건, 미국이건 혹은 뉴질랜드이건 간에 국내의 뉴스를 앉은자리에서 받아 볼 수 있다. 또한 하루에 한번만 인쇄하는 전통적인 신문과는 달리 기사가 작성되는 즉시 독자들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신속성 또한 우수하다. 방송의 경우에는 전파를 통해 송출하는 영상신호를 인터넷을 통해서도 송출하기 때문에 몇가지 소프트웨어만 추가로 설치하면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때문에 전파가 도달할 수 없는 지역인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도 많은 교포들이 국내 방송을 시청하고 있으며 반대로 국내에서 외국 방송을 위성방송용 안테나를 설치하지 않고도 감상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월드와이드웹을 이용한 게임, 카지노, 데이터베이스 등 많은 종류의 정보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법을 한 번만 익혀 두면 개인의 경우 정보수집능력이 급격히 상승하게 된다.

흔히 월드와이드웹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명칭이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Netscape Navigator)나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이기 때문에 "넷스케이프를 사용한다"는 표현으로 통용되기도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월드와이드 웹이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서비스인 전자우편은 인터넷을 이용자들간에 간단한 메시지와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해 주는 서비스이다. 팩스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태평양을 건너서 오고가는 편지도 수분 안에 전달되기 때문에 빠르다. 또한 편지 안에 컴퓨터 파일을 첨부할 수 있기 때문에 파일을 주고받는데 아주 유용한 수단이다.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명함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전자우편을 보낼 수 있도록 전자우편 주소를 새겨 두는 것이 보통이다. 간혹 주위사람에게서 받은 명함에 harp@chollian.net 등의 주소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본적이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 것이 바로 전자우편 주소(E-mail Address)이다.

이처럼 인터넷을 이용하게 되면 예전보다 정보수집력이 늘어남과 동시에 보다 많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길을 만들게 된다. 다음에는 이러한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미리 잠깐 이야기하자면 가장 중요하고 갖추기 힘든 준비물은 "배워서 익히겠다는 굳은 의지"라는 이론도 있다는 것이다.